

금호타이어 구조조정 시작됐다

정리하고 앞서 오늘부터 기능직 명퇴 신청 접수

노조 “수용 못해” … 채권단 “조만간 1천억 지원”

금호타이어가 자구안으로 제시한 인원 감축 방안의 하나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 등 본격적인 구조조정 절차에 착수했다.

9일 금호타이어 노사에 따르면 전체 기능직 4천여명 중 1천377명에 대한 인원 감축에 앞서 전체 기능직을 대상으로 10일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는다. 명퇴 신청자는 근속연수와 정년 기간 등을 감안해 평균 임금의 5개월에서 12개월 분의 명퇴 위로금을 지급받게 된다.

금호타이어는 이와 함께 도급사로 끝길 허망자도 신청 받는다.

회사측 관계자는 “회사 생존을 위해 인원 감축은 불가피하다”며 “근로자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 정리하고 예 앞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수용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노조는 이날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측이 제시한 인원 1천377명 구조조정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 조합원의 생존권과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 투쟁하겠다”며 행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노조는 명퇴 신청과 관련해 “명퇴 신청이나 도급사로 끝가는 방안에 대해 명퇴 신청과 관련해 “명퇴 신청이나 도급사로 끝가는 방안에 대해

해 논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사측의 주장인 경영상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논의를 거부했다. 또 긴급 운용자금과 관련해서도 “인원 감축이 전제된 워크아웃 이행 등으로는 차원에 넣 수 없다”고 밝혔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 일가들이 사재출연 등으로는 차원에 넣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은 이날 회의를 열어 금호타이어에 대한 1천억원의 신규 자금과 3천만달러 한도의 신용장 개설에 등으로, 조만간 자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호산업 노동조합은 구조조정에 대한 동의서를 이미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 제출이 전제돼 있다”고 못박았다. 안 단장은 “노조가 동의서를 제출해도 담보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자금 집행은 이를 정도 더 걸린다”며 “설 이전에 자금 집행이 될지는 노조에 달렸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금호산업에 대해서는 신규 자금 지원을 개시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 일가들이 사재출연 등으로는 차원에 넣 수 없다”고 밝혔다. 체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 일가들이 사재출연 등으로는 차원에 넣 수 없다”고 밝혔다. 체권단은 “금호아시아나그룹 대주주 일가들이 사재출연 등으로는 차원에 넣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산업은 행의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실제 자금 집행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금호타이어는 이와 함께 도급사로 끝길 허망자도 신청 받는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9일 오전 ‘금호타이어 사주기 캠페인’이 열린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의회 주차장에 행사장을 찾은 차량들이 길게 꼬리를 묻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금호 계열사株 줄줄이 상한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오너 일가가 사재 출연에 전격 합의하면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금호석유 등 계열사들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다.

또 금호그룹 대주주의 사재 출연 거부 움직임에 따라 최근 낙폭이 확대됐던 은행 주(株)들도 반등하며 하락분을 맴회했다.

9일 유가증권시장에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 금호석유는 가격 제한폭까지 치솟았다. 금호산업은 1주당 가격이 전일 대비 735원, 금호타이어는 460원, 금호석유는 2천400원 올랐다. 아시아나항공(↑13.62%), 대한통운(↑6.38%), 대우건설(↑0.94%) 등 다른 계열사들의 주가도 초강세를 나타냈다.

박종모 신한금융투자·광주지점장은 “금호그룹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합의에 따라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투기적인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윤영기자 penfoot@

금호 박찬구 복귀…‘후폭풍’ 부나

금호석화·미쓰이화학 등 인사 개편 촉각

특히 박 전 회장이 박 명예회장과의 갈등으로 그룹에서 물려났던 만큼 인사 폭이 다소 수 있다다는 전망도 나온다. 그룹 관계자는 “인사가 있은 지 한 달이 채 되지도 않았지만, 계열별 분리경영을 하게 되는 이상 박 전 회장이 경영하는 계열사는 새로운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금호아시아나의 화학부문 계열사는 지난달 계열사 사장단과 임원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이는 박삼구 명예회장에 의해 단행된 인사였던 만큼 박찬구 전 회장의 아들 철완 씨는 현재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전략경영본부 부장으로 있다. 그러나 분리 경영에 따라 전략경영본부의 임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신은 금호석화의 경영을 책임지는 만큼 자리를 옮기게 될 가능성 이 크다. /연합뉴스

산업銀 “금호산업 경영권 보장없다”

금호그룹 채권단이 금호산업의 경영권을 박씨 일가에게 보장해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채권단은 아울러 지난해말 대주주들에게 약속했던 금호산업 주식 우선 매수 청구권도 보장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금호산업은 경영정상화 이후 시장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9일 “금호석화와 미쓰이화학, 금호파인애플리케이션, 금호화이씨 등은 3년간 경영권을 보장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지만, 금호산업은 경영권 보장이 없다”며 “박삼구 회장이 금호

산업 명예회장직을 유지하나 실질적인 경영은 채권단이 임명하는 대표이사(CEO)가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주주 주식 우선매수 청구권도 금호석유화학과 금호타이어에는 부여될 것이다. 금호산업은 채권단의 협의 결과에 따르게 된다”면서 “금호산업은 감자와 출자전환을 거치면 대주주 지분이 거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역민 ‘금호살리기’ 줄잇는다

시의회서 타이어 교체 행사… 22개 시·군도 동참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

행중인 금호타이어 살리기 운동이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9일 오전 광주시의회 주차장에서는 금호타이어 구매 및 교체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시작됐지만 30여분 전부터 행사를 찾은 차량이 길게 꼬리를 물며, 시의회 앞 도로가 정체 현상

을 빚기도 했다.

이날 금호타이어는 정비차량 2대와 정비사 등 직원 14명을 보내

공장도 가격에서 5% 정도 할인되며 가격(시중가 30% 할인)으로 잠작비를 받지 않고 타이어를 교체해 줬다. 타이어를 교체할 필요가 없는 경우 할인쿠폰을 발행해 공장 도가에서 5% 할인된 가격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 8일 전남도청에서 타이어 구매 행사를 열었으며, 10일에는 곡성읍을 시작으로 22개 시·군별로 구매행사를 열 계획이다.

금호타이어 김웅주 품질담당부

장은 “금호타이어를 살리기 위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최상의 서비스로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상의·중企지원센터 ‘청년인턴’ 모집

근로자 5인이상 사업체

체이며, 최근 1개월 내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또 학교법인과 공기업은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인턴과 약정한 금액의 50%를 6개월 동안 월 8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게 되고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월 65만원씩 6개월 동안 추가 지원된다.

또 제조·생산직종에 취업한 인턴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취업 장려수당을 2회에 걸쳐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상의(kjcc.or.kr)와 광주중소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지(www.ksbs.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62-350-5867, 062-955-4045.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코스피지수	1,570.49 (+17.70)
코스닥지수	491.20 (+3.79)
금리 (국고채 3년)	4.27% (+0.01)
원·달러 환율	1,163.80원 (-8.10)
<small>※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small>	

※수치는 전일 종가 기준

대인동삼일부동산
(FAX) 223-1772 휴 011-602-2532
(광주오류 신관점점,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신가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신가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순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을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신다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을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383-5221 휴 011-609-5221
(구 상무대 정문)

상가임대

(상무지구 세정아울렛과 백양사이)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1층 555㎡ (162평)	1,800만원	금융기관 외투 등
2층~4층 400~500㎡	400~500만원	병원, 학원 사무실 등

층별	임대 3.3㎡당	권장 용도
9층 350㎡ (107평)	350만원	회사, 특사실 사무실 등

맞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려겠습니다.
★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분수원지구 롯데마트앞 입 양 멜리스타워빌딩 대

- 1층: 약국, 커피전문점, 글로벌점, 이름이올렛, 퍼스트푸드, 편의점 등
- 2층: 패밀리마트로 편의점, 이름이올렛, 이웃도어
- 3층: 병·의원, 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 등
- 4층: 병·의원, 안과, 피부과, 비뇨기과, 치과 등
- 5층: 병·의원, 정형외과, 한의원, 바둑학원, 당구장 등
- 6층: 학원가, 영어, 수익, 입시, 미술, 음악, 전문학원, 독서실 등
- 7층: 스카이리운지, 생맥주 호프바

※각층 약 230평 (분할가능)※

- 대지매매 ○
- 수원동 롯데마트 앞 10×10×6m 코너 상업용지 270평 투자최고, 수익률 최고, 펴당 225만원
- 점포임대 ○
- 수원동 주변대로변(35m, 4번로) 3층사무실 140㎡ 펴당 110만원 의원, 학원, 사무실적 합
- 수원동 삼성전자로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2층 620㎡ 펴당 150만원(내과, 소아과, 이비인후과) 적합
- 수원동 삼성전자로 외환은행건물(메디컬센터) 3층 620㎡ 펴당 120만원(부과, 비뇨기과, 안과 적합)

코리아랜드공인중개사 010-3666-8949

부동산 경매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법원 앞에서 70m 법원사회관 앞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 236-3400

assetkorea.com = 전국 2만 여건의 경매물건리스트 / 번호사 무료법률상담 / 경매전문가 무료상담
에셋코리아에서는 품질하게 현황조사를 실시한 후 수익성 있는 우량물건만을 추천합니다.

근린시설·월정 대표이사 010-7570-7525

소재지	대지/건물	면적/층	건물가	최저가	비고

<tbl